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초대 회장 故 지제근 선생님 영전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지제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선생님께서 2014년 11월 26일 오전 11시에 향년 76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은 11월 29일에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대한의학회장으로 거행 되었습니다.

지제근 선생님은 2004년 4월 3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창립 멤버 167명을 대표하여 초대회장(2004년 5월-2006년 5월)으로 선임되시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셨으며,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의학계의 최고위 전문단체로 자리매김하도록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외에도 지제근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의학계의 발전을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의 의학한림원과 우리나라 의학발전이 있도록 이처럼 헌신해 오셨기에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의지해왔던 지제근 선생님께서, 단 한 마디 당부도 남기시지 않은 채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선생님의 빈자리는 너무도 크고 또 아프기만 합니다.

올 해 발간되었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0년사”의 역대 회장 회고란에 지제근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의학한림원이 창립한지 10년이 된 지금은 그 동안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기획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을 기념할 때에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전문가 단체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0년 간 의학한림원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선생님께서는 이미 또 다른 10년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께서 생존해 계시던 동안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발전을 위해 몸소 보여주셨던 관심과 사랑을 되새기고, 그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제근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故지제근 명예교수 (1938. 2. 25. - 2014. 11. 26)

[학력]

1956년 3월 3일 경기고등학교 졸업
 1962년 3월 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64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1968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경력]

1962년 3월-1966년 6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

1966년 4월-1969년 6월 군복무(공군항공의료원 연구부)

1969년 9월-1970년 6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임 강사

1970년 7월-1976년 7월 미국 하버드의과대학(전공의, 전임의, 전임강사)

1976년 10월-2003년 2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89년 1월-1993년 1월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장

1992년 7월-1996년 7월 서울의대 병리학교실 주임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 병리과 과장
 1995년 12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1996년 10월 대한병리학회 회장
 1997년 11월 대한의학유전학회 회장
 1998년 5월 대한의사학회(大韓醫史學會) 이사장
 1999년 6월-2003년 3월 대한의학회 회장
 2001년 3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담당 부회장
 2002년 11월 제3세계 과학학술원 정회원
 2003년 3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03년 3월-2007년 3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

[의학한림원에서의 주요 경력]

- 2004년 5월-2006년 5월 초대회장
- 2004년 5월-2006년 12월 ‘의학관련 용어개발

- 및 표준화특별위원회’ 1-2대 위원장
- 2007년 2월-2014년 11월 ‘의학관련 용어개발 및 표준화특별위원회’ 위원
- 2009년 6월-2012년 12월 ‘화이자의학상 운영위원회’ 3-4대 위원장
- 2010년 2월-2014년 11월 ‘회원인사위원회 4-5대 위원장
- 2013년 2월-2014년 11월 ‘화이자의학상 운영위원회’ 위원

[수상]

- 1969년 2월 유한의학상(분상) 수상
- 1992년 9월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
- 2011년 4월 국민훈장 무궁화장 서훈
- 2014년 4월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

고 지제근 선생님 영전에 바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주임교수 김 우 호

제가 본과 1학년때인 1976년도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그만두시고 귀국하신 선생님은 그 당시 학생들에게 여러 모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농구를 하시는 친밀감을 보여주시고, 학생들이 연구실에 와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며, 유창한 영어 발음의 명강의에 학생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병리과에 입국할 때는 제법 경쟁이 심했는데, 아마도 선생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81년 전공의 1년차를 시작하면서 병리진단의 철두철미한 면뿐만 아니라, 부검에 대한 마음가짐을 일깨워주셨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엄청난 논문 집필 의지를 보며 배우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과 집담회나 병리학회 집담회에 빠지는 법이 거의 없으셨고, 모든 증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집필 하시면서도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을 항상 유지하셨고, 필요한 서류철을 즉시 찾아내는 치밀함과 시간 약속에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신 점도 제자들이 선생님을 항상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소아병원이 생기면서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소아병리

학의 학과를 창설하셔서 많은 문하생을 배출하신 점은 우리나라 병리학의 큰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소아부검을 통해 우리나라 소아의 형태학적 정상 범위가 확립되었고, 우리나라의 선천 기형에 대한 증례가 집대성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께서 과장이실 때 제가 의무장으로 일하면서 교실을 운영하는 리더십을 익힌 것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회갑과 정년 퇴임시, 그리고 퇴임 후 10년째에 기록을 정리하는 책자를 만드실 때 후배들의 도움을 마다하시면서, 모두 손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시는 노고에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퇴임 후에도 많은 좋은 조건을 마다하시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곳을 고집하시면서 인천까지 매일 출퇴근 하신 것을 보면 선생님이 연구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암치료로 힘드신 중에도 강연과 집필을 계속하시는 열정에 후배들이 숙연해집니다. 지난주 저희교실 동문회 모임에 참석하셔서 근황과 함께 교실을 위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이 아직 귀에 쟁쟁한데,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신다는 게 믿기지를 않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병리학교실 식구들은 모두 허탈하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다행스럽게 선생님의 기록과 역사는 그 무엇보다 잘 정리되어 있어 항상 저의 곁에 있을 것이

며, 선생님의 업적과 열정, 그리고 격려는 병리학 교실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선생님의 가

르침을 잊지 않고 선생님이 계실 때처럼 곧바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선생님의 영전에 약속드립니다.

제5회 보건의료정책포럼

“환자중심·근거기반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미국의학한림원의 역할)”

10월 29일 파인버그 미국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 IOM) 전회장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 초청으로 한국을 3박4일 일정으로 방문하였다. 파인버그 박사는 2002년부터 12년간 미국립의학연구소 회장과 하버드대 공중보건 학장을 13년간 지내는 등 미국의 의료계를 이끌어왔던 의료정책 전문가이다. 10월30일 오전에는 보건의료정책 조찬모임을 오후에는 포럼을 가지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 보건의료정책 조찬모임

조찬모임은 10월 30일 오전 7시 JW 메리어트호텔 LL층 미팅룸5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서 파인버그 박사는 미국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참석자들과 열띤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파인버그 박사는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로 다양한 입장의 의료계, 미국 연방 정부 및 이익 단체의 갈등을 꼽았고, 제마다의 입장과 이익이 다른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IOM은 환자들을 위한 주장을 피웠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의 역사적 발전단계와 복잡한 구조, 최근 오바마 대통

령이 추진하였던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미국 의료계가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1) 세계 2차 대전 이후 생명의학 분야의 기초, 예방, 치료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 (2) 기업가 정신과 새로운 도전이 보상 받는 다양한 문화 포용, (3)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에 따른 국가의 부 등 3가지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올바른 의료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료인은 환자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끊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자리에는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 박인숙 국회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주현 상임위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명현 위원장,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청년의사 박재영 편집국장, 남궁성은 회장을 비롯한 의학한림원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조찬 모임은 의학한림원의 정책개발위원회(위원장 임태환)가 오랫동안 준비하여 왔고, 이날 가톨릭의대 핵의학과 오주현 선생님이 파인버그 박사의 발표내용을 요약 번역하여 이해를 도왔고,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회 정승은 위원과 함께 조찬모임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 보건의료정책포럼

같은 날 오후3시~6시20분 의학한림원과 김준진 보건복지위원장실, 문정림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제5회 보건의료정책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계, 의학계, 국회의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학한림원 위상 강화와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되었으며, 포럼 전체과정은 인터넷으로 전국에 중계되었다.

남궁성은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 김준진 보건복지위원장, 문정림 의원, 김용익 의원, 박인숙 의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축사가 정승은 교수(가톨릭의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좌장인 박병주 교수(서울의대)가 포럼을 진행하였다. Harvey V. Fineberg 교수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미국IOM의 역할”에 대한 기초강연 후 3 명의 발제자인 이종구 교수(서울의대, 전 질병관리본부장)가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 참여 경험”, 문정림 의원(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이 “보건의료정책에서의 국회 역할”, 신의철 교수(가톨릭의대)가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강철희 상근부회장(대한의사협회), 이진한 기자(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허대석 교수(서울의대,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안형식 교수(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 근거중심의학연구소장)가 참여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미국의학한림원 파인버그 박사는 기초강연에서 IOM의 운영 목표, 방식, 위상 그리고 역할에 대한 강연을 통해 한국 의학한림원의 미래 청사진을 설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연에서 파인버그 박사는 “IOM은 정책결정기관, 정책집행기관이 아니라 정책적 자문을 하

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자문역이다. 비영리기관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결정에 중립적이면서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IOM은 정부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니며 연방자문위원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면서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IOM 활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구성요소는 정부와 장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해당 분야에 최고의 학문적 권위를 자랑하는 단체들이 있지만 그 중 유일하게 의학한림원만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최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의학한림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문 의원은 “의학한림원이 한국 의료계의 최고 권위의 학문단체이지만 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하면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단체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참여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법안을 발의해도 의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했다.

의학한림원이 적극적인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번 포럼을 통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우리나라 의료계의 의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며,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료계, 의학계, 정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12회 화이자의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제12회 화이자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기초의학부문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남석우 교수(48세)가 임상의학부문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고원중 교수(47세)가 수상하였으며, 시상식은 11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조선히otel 2층 오키드룸에서 개최되었다. 화이자의학상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후원하는 상으로 한국 의학계의 비전제시와 의학분야 연구경쟁력을 높여 한국의학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의학상으로 상금은 각 3,000만원이다.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



남 석 우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학 력

1987년 - 1989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사
1989년 - 1991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약학석사
1993년 - 1997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약학박사

경력

1994년 - 1996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강사
1995년 - 1995년 일본 이화학연구소 (RIKEN, Japan) 방문연구원
1997년 - 1997년 성균관대학교 약학연구소 특별연구원
1997년 - 2001년 미국 국립보건원 국립암센터 박사 후 연구원
2001년 - 2002년 싱가포르 유전체 연구소 (Genome Institute of Singapore) 연구원
2001년 - 200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2003년 -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2007년 - 현재 Molecular & Cellular Toxicology (SCT) 편집위원
2011년 - 현재 한국바이오학회 단백질 및 DNA 칩 분과위원장
2013년 - 현재 가톨릭대학교 기능전사체 연구소 소장

수상경력

2000년 NIH Research Fellowship NIH, USA
2000년 NIH Young Fellow NIH, USA
2009년 우수 학술상 독성단백유전체학회
2013년 환경산업기술원 최우수 과제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년 환경부장관 표창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년 환경산업기술원 최우수 과제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년 연구재단 기초 우수성과 한국연구재단

수상소감

지난 6월 어느 날 저희 학교 병리학교실 이정용 교수님께서 제12회 화이자의학상 수상후보자 공모안내문을 들고 제 방에 오셔서 한번 응모해보라고 하실 때까지, 제가 막상 이렇게 영광스럽고 큰상을 수상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자격도 부족한데 괜히 응모하여 학교에 누가 될지도 몰라 교수님께 완곡히 거부의를 드렸지만, 이번에는 지난 11회 때까지 외는 달리 응모자격이 대한민국국적의 의과대학 소속 의과학자로 개방하여 기초 및 임상연구자를 선정하므로 비의사로서 의과대학 기초학교실의 교수로 있는 저로서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셔서 큰 용기를 갖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유일하게 약학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병리학교실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독특한 경력의 의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을 이항우 교수님의 지도하에 마치고, 미국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산하 기관인 암센터 (National Cancer Institute)의 병리 연구실(Lab of Pathology)로 post-doc fellow로 연수를 떠날 때 까지만 해도 그저 암과 관련된 연구가 좋아서 넓은 세상에서 연구하는 것이 좋았지 이렇게 훌륭한 대학의 교수로서 또 오롯이 제가 좋아하는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될지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박사 후 연수 과정 중에서 “종양유전체”라는 새로운 학문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을 때, 마침 미국 연구실의 스승인 Dr. Edison Liu께서 싱가포르의 유전체연구소(Genome Institute of Singapore) 소장으로 초빙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싱가포르 연구소에 합류하게 되어 최첨단 유전체학문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 당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주임교수 이셨던 이정용 교수님께서 가톨릭의대의 연구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적극 추천하시고 학교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가 되었고, 오늘날 화이자의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영광스런 화이자의학상 기초의학부분 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 연구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용 교수님께 이 영광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구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주신 이정용 교수님은 제 평생의 등불이 되어주신 스승님이십니다. 또한 늘 곁에서 큰 형처럼 기댈 수 있고 기쁨과 슬픔을 언제나 함께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병리학교실 주임교수이신 박원상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상의사가 아닌 제가 간암과 위암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지식과 소중한 임상시료를 연구에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장자준 교수님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김호근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하고 부족한 환경이지만 연구에 대한 열정 하나 만으로 젊은 청춘을 저와 함께 보낸, 노지현, 김정규, 정광화 박사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연구실에서 묵묵히 연구하는 배현진 박사, 은정우 박사, 김형석, 박세진, 신철유, 신우찬, 양희두, 박미정 모든 연구실 식구와 연구행정을 도와주는 김수연 선생께도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끝으로 자식을 위해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마음속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결혼 21년 동안 늘 곁에서 사랑으로 내조하는 아내, 정효진과 나의 가장 든든한 두 아들 정환과 기정에게 이 기쁨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논문요약 및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간세포성 간암환자의 종양조직과 주변 간조직을 검사한 결과, SIRT7유전자가 종양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과발현되며 이로 인해 종양세포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SIRT7에 대한 종양유전자 기능을 규명하고 이를 제어 할 수 있는 세포 내 마

이크로RNA를 밝혀냄으로써 간암발생기전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함께 치료적 수단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인간의 모든 질환은 유전자(gene) 기능의 비정상적 조절에 의해서 발생되며, 그 동안 DNA 염기서열(DNA nucleotide sequences) 변화 또는 재조합(recombination)이 이러한 유전자 기능 변화의 원인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특정 DNA 염기서열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유전자의 기능이 변화될 수 있으며, 이 변화는 후손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보고되었으며, 후성유전학(epigenetics)은 바로 이러한 현상, 즉 DNA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도 유전자의 발현 또는 그 활성이 변화되고, 이 현상이 질병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후성유전학적 유전자 조절은 DNA 염기서열의 methylation 혹은 히스톤단백질의 변형(histone modification)에 의해서 조절되며, 본 연구자는 이중 히스톤단백질의 변형과 관련하여 히스톤단백질의 아세틸화를 조절하는 단백질인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histone deacetylases, HDACs)의 간암 발생과 진해에 대한 역할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SIRT7 (sirtuin 7) 은 sirtuin 이라 알려진 Class III HDAC 그룹에 속하며, 7가지 sirtuin 중 (SIRT1-7) 그 기능은 아직까지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다. 특히 SIRT7은 rDNA 전사를 위한 activator로서의 역할만이 보고되어 있으며, 종양 생성과 관련된 기능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SIRT7이 과발현될 경우 종양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세포의 자가포식 사멸작용을 억제해 암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었다. 이와 관련해 누드마우스를 이용한 이종이식 실험결과 SIRT7 발현이 억제된 간암세포주가 그렇지 않은 간암세포주에 비해 종괴형성이 현저히 억제 된다는 사실도 발현하였다. 또한 SIRT7 유전자는 정상 간세포에서는 마이크로RNA 125-a-5p와 마이크로RNA 125b에 의해 단백질 번역이 잘 조절 되지만, 대표적 종양억제 유전자인 p53단백이 돌연변이가 발생하거나, 이들 두 마이크로RNA의 조절 부위에 DNA메틸화가 발생하면 마이크로RNA 생성이 저해되고 결과적으로 SIRT7의 과발현이 유도되어 간암발생의 위험도가 상승한다는 사실도 제시함으로써, SIRT7 유전자가 과발현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간암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간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5대 암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 한국형 3대 호발 암의 하나로서, 201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5년 생존율이 28.6%에 불과한 극히 예후가 불량한 암종이나, 현재까지 sorafenib 단 1종의 약제만이 유일한 항암제로 FDA에 승인되어 있어 앞으로 매우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치료 수단이 요구되는 암종이다.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성과와 더불어 지난 수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IRT7 유전자 같은 히스톤탈아세틸화 효소들이 간암 생성과 발생에 있어 다양한 기전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러한 히스톤탈아세틸화 효소들의 상호조절 기작을 밝혀냄으로써 복잡한 간암의 발생 기전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상의학 부문 수상자



고 원 중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학 력
 199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199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졸업 의학석사
 200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

경력

- 1993년 - 1994년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 1994년 - 1998년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레지던트
- 1998년 - 1999년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역학조사과 (공중보건 의사)
- 1999년 - 2001년 보건산업진흥원 보건 의료 기술 연구 기획평가단 (공중보건 의사)
- 2001년 - 2003년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임상강사
- 2003년 - 2004년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임상전임강사
- 2004년 - 2008년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조교수
- 2008년 - 2014년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부교수
- 2009년 - 2010년 National Jewish Health (미국 콜로라도 덴버 Visiting Schdar)
- 2009년 - 현재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간행위원회 위원
- 2011년 - 현재 International Journal of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 부편집인
- 2012년 - 현재 질병관리본부 결핵전문위원회 위원
- 2013년 -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관리전문가(Program Manager)
- 2014년 - 현재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수상경력

- 1999년 국립환경연구원장상 국립환경연구원
- 2006년 대한내과학회 학술상 대한내과학회
- 2008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최우수 연구자상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 2009년 제37회 보건 의 날 국무총리표창 대한민국정부
- 2009년 제42회 유한의학상 대상 서울특별시사회
- 2013년 제15회 합춘내과 학술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수상소감

화이자의학상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고, 한국

화이자제약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상입니다. 아직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훌륭한 상을 주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남궁성은 회장님과 최병인 선생님을 포함한 심사위원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발표가 난 이후 가족과 선생님들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축하를 받았습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경수 선생님, 삼성서울병원 병원장 송재훈 선생님, 삼성서울병원 연구부원장 홍성화 선생님께서 제일 많이 축하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과 그 중에서도 호흡기내과 의사로서 주로 폐결핵과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다른 질환들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제가 호흡기내과 의사로서 이 질환을 전공하고 싶다고 할 때 주위에서는 우려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임상연구의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화이자의학상을 수상한 것이 이런 소외된 질환을 전공하는 것도 환자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해서 기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질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작은 계기가 되고, 이 질환을 전공하고자 하는 젊은 후배들이 늘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연구자이기 전에 임상 의사입니다. 제가 하는 연구

의 모든 주제는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생긴 임상적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임상연구자이기 전에 환자를 진료하는 좋은 임상 의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내과 전공의 시절부터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심영수, 한성구 선생님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권오정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상연구자로 커 가는데 어떻게 의학 논문을 써야 하고, 왜 해외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여야 하는지를 임상 강사 시절부터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이경수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제가 2004년 의과대학 조교수 발령을 받은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폐결핵과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를 꾸준히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환자 진료를 도와주시는 여러 과의 선생님들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김태성, 정명진, 이진아 선생님, 진단검사의학과 이남용, 기창석 선생님 그리고 흉부외과 김진국, 최용수, 김호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에 근무하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다른 일을 줄이고 폐결핵과 비결핵 항산균 환자 진료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주시는 호흡기내과 김호중, 정만표 선생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상 의사이자 같은 주제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초의과학자를 만나고 함께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저에게 미생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새로운 시간과 지식을 알려주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신성재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연구실의 김수영 박사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폐결핵과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에 대한 진료와 임상 연구를 함께 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후배들인 전경만, 박혜운, 정병호 선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 앞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저를 인정하고 도와주는 아내 이윤진과 아빠를 믿고 항상 응원해주는 아들 성민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도 죄송함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피부과 전문의로 평생 환자 진료를 하셨던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께 그리고 제가 진료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분한 사랑과 지원을 해 주신 장인 장모님께

그래도 아들 또는 사위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논문 요약 및 연구의 의의

비결핵 항산균(非結核 抗酸菌, nontuberculous mycobacteria, NTM)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과 나병균(*Mycobacterium leprae*)을 제외한 항산균(*mycobacteria, acid-fast bacilli, AFB*)을 말한다. 대부분의 NTM은 자연수와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병원성이 낮은 균이다. NTM 폐질환은 주위 환경에 존재하는 균이 공기를 통해 호흡기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폐결핵 흉터 또는 기관지확장증 등 기존 폐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질병이 발생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전염은 없으며, 따라서 NTM 폐질환 환자를 격리할 필요는 없다. NTM은 현재까지 150여종이 넘는 균종이 알려져 있으며 계속 새로운 균종이 밝혀지고 있다. NTM 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은 *Mycobacterium avium complex*와 *Mycobacterium abscessus*이다.

NTM 폐질환은 국내에서 환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진단과 치료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NTM 폐질환 환자는 임상상과 방사선 소견이 폐결핵과 유사하고,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결핵균과 구별이 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폐결핵으로 흔히 오진되어 결핵치료를 받고, 가족들은 불필요한 결핵 접촉자 조사를 받고 있다.

NTM 폐질환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항생제는 아지스로마이신(*azithromycin*)과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등 경구용 매크로라이드(*macrolide*) 항생제이다. 그런데 매크로라이드(*macrolide*)를 포함한 여러 경구용 항생제를 병합하여 18-24개월 치료를 하더라도 *M. avium complex* 폐질환의 치료성공률은 50-60%에 불과하다. 매크로라이드 항생제는 *M. abscessus*에 효과가 있는 거의 유일한 경구용 항생제인데, *M. abscessus* 폐질환은 경구용 매크로라이드 항생제에 여러 정주용 항생제를 함께 사용하여도 치료 성공률은 30%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NTM 폐질환에 대한 이러한 항생제 치료성적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제내성결핵(*multidrug-*

resistant tuberculosis, MDR-TB)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미생물학의 발전으로 *M. abscessus*는 최근 *M. abscessus*와 *M. massiliense*라는 다른 균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알려졌다. 본 연구팀은 *M. abscessus* 폐질환과 *M. massiliense* 폐질환이 동일한 항생제 치료에 대한 치료반응이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밝혔다. 경구용 매크로라이드 항생제를 포함한 병합항생제 치료를 하였을 때 *M. abscessus* 폐질환의 치료성공률은 30% 미만이지만, *M. massiliense* 폐질환의 치료성공률은 90% 가까이에 달한다. 과거에는 동일한 균이라고 알려진 *M. abscessus*와 *M. massiliense*에 의한 폐질환의 치료성적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받은 23명의 *M. abscessus* 폐질환 환자와 24명의 *M. massiliense* 폐질환 환자로부터 분리한 균주를 대상으로 하여 매크로라이드 항생제의 치료효과를 실험실 내에서 그리고 동물실험을 통해 비교하였다. *M. abscessus*와 *M. massiliense*에 대한 매크로라이드 항생제 내성여부는 검사실에서 3일째 최소억제농도(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를 이용하여 판정하는데, 두 균 모두 낮은 최소억제농도를 보여 매크로라이드 감수성이라고 판정한다. 그런데 매크로라이드 항생제가 포함된 배지에서 배양기간을 14일까지 연장하면 *M. abscessus*는 최소억제농도가 계속 상승하여 매크로라이드 내성이 되고, *M. massiliense*는 계속 낮은 최소억제농도를 보여 매크로라이드 감수성이 유지된다. 즉, 다른 균에서의 일반적인 항생제 내성과는 다르게 *M. abscessus*는 매크로라이드 항생제에 노출이 되고 난 후에 이에 대한 내성이 유도되고(inducible resistance), *M. massiliense*는 이러한 매크로라이드 유도내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M. abscessus*에서 매크로라이드 항생제에 대한 유도내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균이 가지고 있는 erythromycin ribosome methyltransferase(erm) 유전자 때문이다. *M. abscessus*가 매크로라이드 항생제에 노출되게 되면 이 erm 유전자가 발현되고

이로 인해 항생제가 결합하는 부위의 변형이 초래되어 매크로라이드 내성이 유도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M. massiliense*는 erm 유전자의 결합이 있어 이러한 매크로라이드 항생제 유도내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erm 유전자 결손을 시킨 *M. abscessus*는 매크로라이드 유도내성을 보이지 않으며, erm 유전자를 넣은 *M. massiliense*는 매크로라이드 유도내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러한 erm 유전자의 차이가 과거 동일한 균이라고 알려졌던 *M. abscessus*와 *M. massiliense*가 동일한 항생제 치료에 대해 치료반응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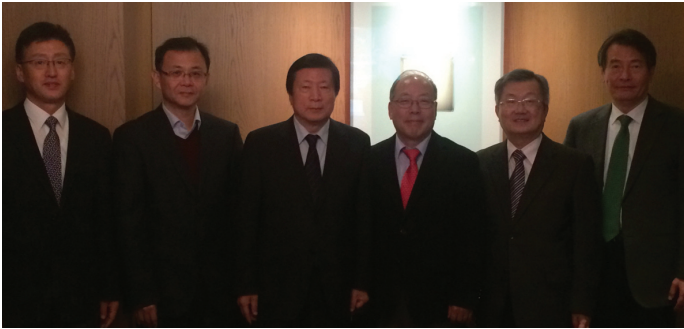
또한 본 연구는 같은 매크로라이드 항생제라고 하더라도 클레리스로마이신에 비해 아지스로마이신이 *M. abscessus*에서 erm 유전자 발현이 덜 되고, 동물실험에서도 치료성적이 높다는 것을 밝혀, *M. abscessus* 감염증에서 클레리스로마이신보다 아지스로마이신이 더 치료효과가 높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불치병(incurable infectious disease)으로까지 여겨졌던 *M. abscessus* 폐질환은 이제 원인균이 *M. abscessus*인가 *M. massiliense*인가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큰 차이를 보이며, *M. abscessus* 폐질환과 달리 *M. massiliense* 폐질환은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진료현장에서 *M. abscessus*와 *M. massiliense* 구별이 그만큼 중요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M. abscessus* 폐질환의 치료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erm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팀은 NTM 폐질환에 관한 연구결과를 호흡기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2013년 impact factor 11.986)과 감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 Clinical Infectious Disease(2013년 impact factor 9.416)에 지난 5년간 5편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 중 하나이며 NTM 폐질환의 치료성적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후속연구를 계속 진행 중이다.

홍보위원회 구성 보고

소식지 발간과 홈페이지 재정비 및 관리 그리고 의학한림원 사업의 홍보를 담당할 홍보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구분	성명	소속	전공과목
위원장	이정용	가톨릭의대	병리학
위원	박원상	가톨릭의대	병리학
위원	지종대	고려의대	내과학
위원	채종일	서울의대	기생충학
위원	최병길	가톨릭의대	영상의학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제12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2015년 1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회원 선출, 결산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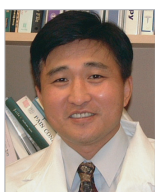
일시 : 2015년 1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장소 :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소재)

회원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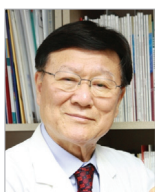
김달수 (중신정회원)

김달수 회원은 2014년 9월 26-27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일뇌혈관외과학회에 참석하여 9월 27일의 luncheon seminar에서 “secondary stroke prevention; lesson from SAMURAI-NVAF Study”와 “A retrieval thrombectomy technique in a large cerebral artery occlusion”에 대한 좌장을 보고 귀국하였다.



김용철 (임기정회원)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용철 교수는 2014년 11월 22일~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에서 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노영무 (중신정회원, 회원인사위원)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 이사장인 노영무 위원은 지난 11월 19-22일 4일간 세종병원 및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 심장중재 심포지엄(Asia-Pacific Cardiovascular Intervention Symposium-조직위원장 서정욱)을 개최하였다. 18개국의 외국인 51명 포함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장중재 시연, 강연, 심장병리 시연, 3-day Pathology Seminar, 우촌-세종 합동 심혈관 심포지엄 등을 성황리에 마쳤다.

회원 동정



정명호 (임기정회원)

-2014년 자랑스런 일고인상 수상

정명호 교수는 전남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현재까지 10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 국내 최다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광주일고인의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정 교수는 수많은 저서와 30여 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했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심장질환 특성화 연구센터장 및 한국 심혈관계 스텐트 연구소장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심장질환 치료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근경색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령 환자 수술 기록(101세 할머니)을 가지고 있고, 최근 EBS '명의'에 출연해 심근경색증 환자 치료에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업적을 전국에 알려 학교의 명예를 높였다.



최용만 (종신정회원)

최용만 회원은 그동안 근무해 오던 서울 송도병원의 Holon 면역 클리닉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후원 안내 및 후원 현황

후원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재정자립을 통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제안과 의학한림원의 각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개인 회원을 비롯한 단체, 기업 등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기금은 의학 발전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과 학술 포럼에 사용될 뿐 아니라 의학한림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의학한림원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하기와 같이 기부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한분 한분의 소중한 참여가 의학한림원은 물론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현황 :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후원하여 주신 회원님들과 단체

단체 : 연세의료원

명예회원

박 준 영(명예회원)

서 교 일(명예회원)

윤 대 원(명예회원)

신 창 재(명예회원)

함 기 선(명예회원)

종신정회원

김 병 길(종신정회원, 제4분회-소아청소년과학)

김 현 주(종신정회원, 제4분회-소아청소년과학)

이 영 우(종신정회원, 제5분회-신경외과학)

정 성 창(종신정회원, 제7분회-치의학)

조 승 열(종신정회원, 제2분회-기생충학)

지 제 근(종신정회원, 제2분회-병리학)

임기정회원

- | | |
|-----------------------------|----------------------------|
| 강 성 귀(임기정회원, 제4분회-내과학) | 송 지 영(임기정회원, 제4분회-정신과학) |
| 고 영 관(임기정회원, 제6분회-응급의학) | 안 세 현(임기정회원, 제5분회-외과학) |
| 김 광 원(임기정회원, 제4분회-내과학) | 유 승 흘(임기정회원, 제3분회-예방의학) |
| 김 병 국(임기정회원, 제4분회-내과학) | 이 승 규(임기정회원, 제5분회-외과학) |
| 김 영 백(임기정회원, 제5분회-신경외과학) | 이 재 승(임기정회원, 제4분회-소아청소년과학) |
| 김 우 현(임기정회원, 제1분회-생화학분자생물학) | 임 정 기(임기정회원, 제6분회-영상의학) |
| 김 진(임기정회원, 제2분회-해부학) | 임 효 근(임기정회원, 제6분회-영상의학) |
| 김 충 현(임기정회원, 제5분회-신경외과학) | 임 태 환(임기정회원, 제6분회-영상의학) |
| 김 현 철(임기정회원, 제4분회-내과학) | 장 성 호(임기정회원, 제6분회-마취통증의학) |
| 김 희 중(임기정회원, 제5분회-정형외과학) | 정 연 태(임기정회원, 제2분회-해부학) |
| 남궁성은(임기정회원, 제5분회-산부인과학) | 지 훈 상(임기정회원, 제6분회-응급의학) |
| 박 병 주(임기정회원, 제3분회-예방의학) | 채 종 일(임기정회원, 제2분회-기생충학) |
| 박 귀 원(임기정회원, 제5분회-외과학) | 천 명 훈(임기정회원, 제2분회-해부학) |
| 박 정 한(임기정회원, 제3분회-예방의학) | 최 병 인(임기정회원, 제6분회-영상의학) |
| 서 창 옥(임기정회원, 제6분회-방사선종양학) | 홍 성 태(임기정회원, 제2분회-기생충학) |
| 선 경(임기정회원, 제5분회-흉부외과학) | |

현재까지의 누적 약정금액 : 154,040,000 원
소중한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후원 신청]

1. 기부 신청을 하시고자 할 경우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팩스(0502-795-4030) 또는 이메일 (namok@kams.or.kr)로 보내 주시고, [기부금 납부 방법]에 따라 “직접 계좌이체 신청용” 또는 “CMS 출금이체 신청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기부약정서는 의학한림원 홈페이지(http://www.namok.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계좌번호 국민은행 : 387201-01-125011 기업은행 : 615-000067-01-057
 신한은행 : 140-010-113029 우리은행 : 1005-302-303549
 예 금 주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후원 문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우140-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전화 : 02-795-4030 / 팩스 : 0502-795-4030 / 전자우편 : namok@kams.or.kr

투고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 매체로서 의학 진흥과 학문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대변지입니다. 보다 활성화 되고 폭넓은 여론의 광장으로서는 명실상부한 뉴스레터 편집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발 행 일 : 연 4회(3월/6월/9월/12월) 발간
- 접 수 처 : 140-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편집실
 전화 : 02-795-4030 팩스 : 0502-795-4030 e-mail : namok@kams.or.kr
- 투고내용 : 제언, 회원 근황, 행사안내, 기타 홍보사항
- 원고접수 : 수시접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제15 호

| 발 행 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40-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Tel. (02)795-4030 Fax (0502)795-4030
 | 발 행 인 | 남궁성은 | 편 집 인 | 김 진 | 인 쇄 | 아람에디트 Tel. (02)2273-2497